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018. 11. 8.(목) 14:00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 소통과 공감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교육정책을 공감하며 행복한 교육터전을 가꾸고, 지속가능한 공교육의 전망을 열어가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반영, 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체 수입 조정, 불용 세출예산의 감액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30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19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억원, 기부금 등 민간이전 수입 44억원과 자체수입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평

생·직업교육 6백만원과 교육일반에 3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교육행정 일반, 기관운영관리와 예비비 등 5개 분야에서 30개 사업비의 불용액 4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과 평생교육 등 3개 분야에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한 재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하여 425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며 교육과 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육을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행복지구 사업과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시책도 자치단체와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금년 도정의 하반기를 맞은 오늘, 충북교육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로 한 차원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